

중공 20기 3중전회: 평가와 시사점

이지용 (계명대학교)

2024년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中国共产党第二十届中央委员会第三次全体会议; 이하 20기 3중전회)가 개최되었다. 20기 3중전회에 대한 주요 관심사는 시진핑 지도부의 경제정책 전환 여부였다. 개혁개방 이후 약 40여 년간 운용해온 중국특색사회주의시장 경제 모델의 내재적 모순이 전면적으로 표출되면서 현재 중국경제가 대내외적으로 매우 심각한 난관에 봉착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기 3중전 회의 결과는 시진핑 지도부가 지난 10여 년간 지속해온 정책을 지속할 뿐만 아니라 시진핑 1인지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 20기 3중전회 결과는 향후 중국 정치경제 및 대외관계에 중요한 함의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당·국가 주도의 경제정책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둘째, 중국사회에 대한 중공 당국의 전체주의적 통제가 한층 더 가속화될 것이다. 셋째, 그 결과 중국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중진국의 함정'을 극복할 수 없을 것이다. 넷째, 국내 사회경제적 난관의 심화가 동아시아 및 전세계 경제안보 문제로 표출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발(發) 동아시아 경제 및 안보 위협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한국은 현재 중국의 사회경제 및 정치적 상황 악화가 한국의 경제와 안보에 끼칠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발 경제 및 안보 리스크를 통제 및 관리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증가하고 있는 안보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자유우방과의 협력 및 공조 체제를 신속히 강화해야 할 것이다.

- I. 문제제기
- II. 중공 20기 3중전회: 의의 및 주요내용
- III. 중공 20기 3중전회 결과 해석 및 평가
- IV. 20기 3중전 이후 중국의 정치경제 및 대외관계 전망
- V. 한국의 고려사항

20기 3중전회 결과는 중공 시진핑 지도부가 지난 10여 년간 지속해온 정책을 지속할 뿐만 아니라 시진핑 1인지배 체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결정을 내리고 막을 내렸음.

I. 문제제기

- 2024년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中国共产党第二十届中央委员会第三次全体会议; 이하 20기 3중전회)가 개최.
- 20기 3중전회는 중공 최고지도부가 집권을 시작한 이후 10년간의 정치경제 노선 및 실행정책을 도출하는 회의로서의 의미가 있음. 따라서 2022년 10월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를 통해 집권 3기로 접어든 시진핑 지도부가 향후 10년간(2022년부터 2027년까지의 5년과 2027년부터 2032년까지의 5년)의 노선 및 정책을 발표하는 회의였음.
- 3중전회는 중공 지도부가 집권 1년차 가을에서 겨울 사이에 개최하는 것을 관례화 해오고 있었으므로 2023년 가을에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약 8-9개월이 지난 2024년 7월에 개최되었음.
 - ▷ 3중전회 개최가 지연되는 배경을 둘러싸고 중공 지도부 내에서의 불협화음과 정책 노선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는 난맥상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음.
- 20기 3중전회에 대한 핵심 관심사는 시진핑 지도부의 경제정책 전환 여부였음.
 - ▷ 현재 중국경제는 대내외적으로 매우 심각한 난관에 봉착해 있음.
 - ▷ 개혁개방 이후 약 40여 년간 운용해온 중국특색사회주의시장경제 모델의 내재적 모순이 심각하게 표출되면서 중국경제의 위기가 전면적으로 표출되고 있기 때문임.
 - ▷ 따라서 중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면적 경제정책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 하지만 20기 3중전회 결과는 중공 시진핑 지도부가 지난 10여 년간 지속해온 정책을 지속할 뿐만 아니라 시진핑 1인지배체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결정을 내리고 막을 내렸음.
- 본 보고서는 20기 3중전회의 의의, 배경,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현재 시진핑을 핵심으로 하는 중공 지도부의 정치경제 노선, 정책적 함의, 대내외 정책표출 방향을 해부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II. 중공 20기 3중전화: 의의 및 주요내용

1.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와 3중전화 의미 및 의의

- 중국은 중국공산당 일당독재국가로서 중국공산당은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대외관계 모든 영역의 중심임.
- ▷ 따라서 중국공산당 지도부인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이하 중공중앙) 전체회의와 일정에 대한 전체적인 파악이 필요하며, 이러한 전체 구도 속에서 3중전화가 갖는 위상과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음.
- 중공중앙 전체회의와 중국공산당 주요 회의들은 <표 1> 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표 1]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중전화) 및 주요회의 일정표

년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2032					
5개년 계획 (規畫)	12·5 계획 (2011-2015년)	13·5 계획 (2016-2020년)				14·5 계획 (2021-2025년)				15·5 계획 (2026-2030년)									
중전화 (중공중앙 전체회의)	5중전화	6중전화	7중전화	1중전화	2중전화	3중전화	4중전화	5중전화	6중전화	7중전화	1중전화	2중전화	3중전화	4중전화	5중전화	6중전화	7중전화	1중전화	2~7중전화
전당대회 (매5년)	18대(大)		전당대회	19대(大)				전당대회	20대(大)				전당대회	21대(大)					

- 국공산당은 전국대표대회(이하 전당대회)를 개최해 중앙지도부를 구성하며, 전국대표 대회(大會)를 통해 구성된 지도부 기간을 하나의 대(大)로 구분함.
- ▷ 1921년 7월 23일 상하이에서 전국대표 13명이 참가한 창당대회(1차 전당대회)부터 1922년 7월 16일, 역시 상하이에서 개최된 2차 전국대표대회(2차 전당대회) 이전까지를 중공 1대(大)로 구분하며, 1923년 6월 12일 광저우에서 3차 전국대표대회(3차 전당대회)가 개최되기 전까지를 중공 2대(大)로 구분하는 것임.
- 중국공산당(이하 중공)은 1921년 창당 이후 전당대회를 통해 중앙 지도부를 선출하였으나, 선출된 중앙지도부가 모두 모여 진행하는 중앙위원 전체 회의는 1928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6차 전당대회 이후에야 시작되었음.

중공은 1976년 마오쩌둥이 사망한 이후 시작된 중공 11대(大) 이후 매 5년마다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고, 구성된 지도부가 집권하는 5년 동안 7차례의 중전회를 개최하는 것을 관례화 해오고 있음.

- ▷ 따라서 중공중앙 전체회의(이하 중전회)는 중공 6대(大)부터 시작되었음.
- ▷ 중공 6대(大)는 1928년 6월부터 1945년 4월 23일 연안에서 7차 전당대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약 17년 간 지속됨.
- ▷ 중공 6대(大) 기간에는 17년 간 총 7차례의 중전회가 개최되었음. 이 기간 개최된 중전회를 각 차수별로 제6기(屆) 중앙위원회 제 몇 차 전체회의라고 하며, 1차 중전회를 6기 1중전회로 줄여서 부르는 것임.
- 중공은 1976년 마오쩌둥이 사망한 이후 시작된 중공 11대(大) 이후 매 5년마다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고, 구성된 지도부가 집권하는 5년 동안 7차례의 중전회를 개최하는 것을 관례화 해오고 있음.
- ▷ 중공 11대(大) 이후 5년 기간 내에 정례화된 7차례의 중전회를 초과하여 중전회가 개최된 사례는 1989년 '6·4 천안문 민주화 항쟁 및 천안문 대도살' 사건이 발생한 상황에서 9차례의 중전회가 개최된 것이 유일한 예외였음.
-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의 형식을 갖추고 구성된 중공 지도부가 5년 동안 집권하면서 통상 7차례 개최되는 중전회는 각각의 개최 목적과 중점 논의 사항이 있음.
- 각 중전회의 개최 목적과 논의 사항은 <표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겠음.
- ▷ 전당대회에서 중앙지도부(중공중앙위원회)가 선출되고 폐막하면, 제1차 중전회는 전당대회 폐막 다음 날 바로 소집되어 중공중앙 정치국 위원과 상무위원 등 최고 지도부를 선출함.
- ▷ 물론, 전당대회에서의 중공중앙위원, 1차 중전회에서의 최고 지도부는 '선출'의 형식만 가질 뿐이며, 중공 지도부에서 이미 정해놓은 인사들을 형식적으로 추진하는 것임.

[표 2]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각 중전회 별 주요사안

중전회	(일반적인) 개최년도	주요사안	대표사례
1중전회	전당대회 폐막 다음날	정치지도부 선출	2022년 10월 20차 전당대회 폐막 다음 날 개최: 시진핑 3연임 및 중앙지도부 시진핑 총성파(習家軍) 장악
2중전회	1차년도 3월 양회 개최 이전	당정 인사개편과 행정조직 개편 등	2018년 1월 19기 2중전회: '중공중앙의 헌법 일부 내용 개정 건의' 통과, 시진핑 사상 국가헌법 삽입 결정 및 국가주석 연임제한 폐지 결정. 2023년 2월 20기 2중전회: <당과 국가기구 개혁 방안> 심의 통과

3중전회	1차년도 하반기 (9-12월)	당 이념 및 전략노선과 집행방향 및 주요정책(경제정책) 등에 대한 문제	1978년 12월 11기 3중전회 (개혁파 당권장악, 개혁개방으로의 노선 및 정책 대전환 계기)
4중전회	2차년도	당의 집정(執政)능력, 당내 단결 및 기율 강화방안 도출	1989년 6월 13기 4중전회: 자오쯔양 총서기 숙청 및 장쩌민을 후임 총서기로 선출. 2019년 10월 19기 4중전회 개최: 시진핑 당내 장악력 공고화.
5중전회	3차년도	차기 5년간 경제규획	19기 5중전회(2020년) '14-5규획(規劃)(2021-2025년)' 확정발표
6중전회	4차년도	당 지도사상과 사회문화에 대한 방침	19기 6중전회(2021년) 중공 '3차 역사결의'
7중전회	5차년도	차기 당대회에 대한 준비	

- ▷ 2중전회는 전당대회와 1중전회를 통해 중공 지도부가 결정되면 전당대회 이후 개최 되는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자대회(이하 전국인대)가 열리기 전에 중공의 국가 기관인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이끌어 갈 주요 직책 인사문제와 행정기구 개편을 결정하는 회의임.
- ▷ 3중전회는 전당대회를 통해 구성된 중공 지도부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새로운 임기를 공식적으로 출범시킨 이후, 중공 최고지도부의 주요 전략노선과 정책을 결정 하는 회의로서, 3중전회를 통해 신지도부의 집행방향을 도출하는 회의임.
- ▷ 4중전회는 당의 집정(執政)능력, 당내 단결 및 기율 강화방안을 도출하는 회의임.
- ▷ 5중전회의 주요 사안은 '5개년 규획(規劃)'을 결정하는 것인데, 또 다른 사안으로 중공 최고지도부의 후계구도를 확정짓는 결정이 이 회의에서 결정된 사례도 있음. 예를 들어, 후진타오와 시진핑은 각각 중공 최고지도자로 선출되기 이전 개최된 5중전회에서 중공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으로 선출됨으로써 후계구도를 확정지은 바 있음.
- ▷ 6중전회는 당 지도사상과 사회문화에 대한 방침이 발표되는 회의로서 여타 중전회에 비해 정치경제적 영향이 작아 비교적 적은 관심을 받았으나, 중공의 사상과 이념 노선 에서 중대한 변화가 이 회의에서 결정됨. 예를 들어, 2021년 개최된 19기 6중전회에서 중공은 '중공 3차 역사결의'를 발표함으로써 중공이 시진핑 사상과 이념의 정당으로 전환되었음을 선언한 바 있음.
- ▷ 7중전회는 5년간의 집정을 마무리하고 다음 전당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소집되는 회의임.

2. 역대 3중전회와 20기 3중전회 의의

- 3중전회는 중공 지도부의 주요 전략노선 및 도출된 노선에 따른 정책을 결정

하는 회의로서 1978년 12월 개최된 11기 3중전회 이전까지는 주요 사안이 시장화 경제개혁이 아니었음(〈표 3〉 참조).

11기 3중전회 이전 개최된 3중전회의 주요 의제는 정치 권력과 이념노선 등이었으며, 경제전략 및 노선과 관련한 회의는 마오쩌둥의 '대약진' 정책이 시작하기 전에 개최된 8기 3중전회였음.

- 11기 3중전회 이전 개최된 3중전회의 주요 의제는 정치권력과 이념노선 등이었으며, 경제전략 및 노선과 관련한 회의는 마오쩌둥의 '대약진' 정책이 시작하기 전에 개최된 8기 3중전회였음.
- 마오쩌둥 사망 이후 덩샤오핑을 중심으로 한 중공 개혁파가 당권을 장악하고 전면적 개혁개방으로의 노선 전환을 선택한 11기 3중전회 이후, 개혁개방 노선에 따라 각 3중전회에서는 주요 시장화 개혁정책이 발표되었던 것임.

[표 3] 역대 중공 3중전회 주요 결정 사항

역대 3중전회	개최 년도 및 날짜	주요 결정사항
중공 1대(大)에서 5대(大)까지는 중앙위원 전체회의가 개최되지 않아 '중전회'가 없음.		
제6기 3중전회	1930년 9월 24-28일	리리싼(李立三)의 이른바 '좌경모험주의' 비판
제7기 3중전회	1950년 6월 6-9일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후 개최. 인민민주독재를 공고화한다는 전략노선과 행동강령 채택.
제8기 3중전회	1957년 9월 20일 -10월 9일	마오쩌둥의 '대약진' 정책으로 전환하는 결정: 중공업 주도 계획경제 심화결정(《关于改进工业管理体制的规定(草案)》) ¹⁾ .
제9기 3중전회	문혁으로 소집 안됨.	
제10기 3중전회	1977년 7월 16-21일	마오쩌둥 사망 이후 개최. 덩샤오핑 복권 및 중공 부주석 복귀. 문혁 4인방 숙청 결의 중공 제11차 전국대표대회 조기개최 합의 ²⁾ .
제11기 3중전회	1978년 12월 18-22일	개혁파 당권 장악 사회주의현대화 건설방침 결정 경제노선 개혁 및 국제협력 강화로 정책 전환 결정 ³⁾ .
제12기 3중전회	1984년 10월 20일	사회주의 시장경제 발전 도출 계획가격에서 시장가격제로의 전환 ⁴⁾ .
제13기 3중전회	1988년 9월 26-30일	'가격 및 임금 개혁에 관한 예비 계획' 《关于价格、工资改革的初步方案》 통과.

1) David Bachman, 1991, Bureaucracy, Economy, and Leadership in China, The Institutional Origins of the Great Leap Forward, pp. 191 - 213; 中共第八届历次中央全会, https://www.gov.cn/test/2007-08/28/content_729624.htm.

2) 中国共产党第十届中央委员会第三次全体会议公报, https://www.gov.cn/test/2008-06/20/content_1022119.htm.

3) 中国共产党十一届中央委员会第三次全体会议公报, <http://cpc.people.com.cn/GB/64162/64168/64563/65371/4441902.html>.

4) 中共中央关于经济体制改革的决定, https://www.gov.cn/test/2008-06/26/content_1028140.htm.

제14기 3중전회	1993년 11월 11-14일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구축에 관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결정'《中共中央关于建立社会主义市场经济体制若干问题的决定》 통과. 의미: 90년대 경제개혁 정책 지침.
제15기 3중전회	1998년 10월 12-14일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한 신정책 발표.
제16기 3중전회	2003년 10월 11-14일	사회주의시장경제 체제구축 개선 비공유경제발전 및 재산권 제도 도입 결정
제17기 3중전회	2008년 10월 9-12일	농촌발전위한 정책
제18기 3중전회	2013년 11월 9-12일	'전면적 개혁심화와 관련한 몇 가지 중대 문제에 대한 결정'이 통과 ⁵⁾ . 경제에서 시장 메커니즘 기능 강화 및 국가 통치 시스템과 통치 능력 강화.
제19기 3중전회	2018년 2월 26-28일	당과 국가 기구 개혁심화 방안 결정 ⁶⁾
제20기 3중전회	2024년 7월 15-18일	'개혁 진일보 전면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중공중앙 결정' 통과 ⁷⁾ . 주요의미: 당·국가 주도 경제 및 국가안보와 사회통제 강화

■ 2012년 집권한 시진핑이 이후 10년 간(2012~2022년)의 정책노선을 발표한 것이 18기 3중전회이었다면, 20기 3중전회는 시진핑 집권 3기에 개최된 회의로서 향후 시진핑의 또 다른 10년간(2022~2032년)의 집권 및 정책방향을 발표하는 회의라는 의미가 있음.

- ▷ 중공 지도부의 집권 기간을 '5년 + 5년' 10년으로 구분할 때, 첫 번째 5년 집권 기간의 3중전회 결정사항이 향후 10년간의 경제노선과 정책방향을 결정.
- ▷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중공 18대(大) 5년과 2017년부터 2022년까지의 중공 19대(大) 5년 기간 동안의 정책방향을 발표하는 것이 18기 3중전회였음.
- ▷ 2022년 중공 20차 전당대회에서 그동안의 관례를 깨고 3연임 및 장기집권 체제로 돌입한 시진핑이 또 다른 10년(20大·5년·2022~2027년+21大·5년·2027~2032년) 간의 정책노선을 발표하는 회의가 이번 개최된 20기 3중전회라는 의미가 있음.

■ 이번에 개최된 20기 3중전회의 결과는 시진핑이 집권하는 동안에는 3중전회가 '시장화와 개방 가속화를 위한 주요 경제개혁 정책을 도출하는 회의'로서의 의미를 상실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 시진핑 집권 2기에 개최된 19기 3중전회부터 당·국가 권한과 역할 강화와 시진핑 1인 지배체제 공고화가 3중전회의 주요 결정사항이 됨으로써 3중전회는 시장화 가속화를 위한 주요 경제개혁 정책을 도출하는 회의로서의 의미를 상실하였음.

2012년 집권한 시진핑이 이후 10년(2012~2022년)의 정책노선을 발표한 것이 18기 3중전회이었다면, 20기 3중전회는 시진핑 집권 3기에 개최된 회의로서 향후 시진핑의 또 다른 10년간(2022~2032년)의 집권 및 정책 방향을 발표하는 회의라는 의미가 있음.

5) 《中共中央關於全面深化改革若干重大問題的決定》, <http://politics.people.com.cn/n/2013/1115/c1001-23559207.html>.
 6) 中国共产党第十九届中央委员会第三次全体会议公报, <https://news.12371.cn/2018/02/28/ART11519815447731142.shtml>.
 7) 中国共产党第二十届中央委员会第三次全体会议公报, <http://cpc.people.com.cn/n1/2024/0718/c64094-40280555.html>.

- 3중전회가 시장화와 개혁 가속화 정책의 주요 경제정책을 도출하는 의미를 상실한 주된 이유는 시진핑의 집권 및 전략노선이 시장화 개혁개방이 아닌 당·국가 권력 강화와 개인 권력 강화로 설정되었기 때문임.

▷ 즉, 개혁개방 이래 3중전회의 성격은 19기 3중전(시진핑 집권 2기)을 정점으로 경제 노선과 중장기 경제정책의 도출에서 시진핑 1인 지배체제와 당·국가 집정력 강화로 전환되었음을 의미.

▷ 이는 향후 시진핑 1인지배체제 하에서 중공의 경제노선과 정책은 당·국가 주도과 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임을 함의.

3. 20기 3중전회 개최 배경 및 주요 내용

20기 3중전회는 시진핑이 2022년 10월 개최된 중공 20차 전당대회에서 장기집권 체제로 돌입한지 1년 9개월여 만에 개최되었음. 3중전회가 통상 집권 1년차가 가을에 개최된 관례를 감안할 때, 장기집권 체제에서의 정책노선 수립을 둘러싸고 상당한 내부진통이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게 함.

- 20기 3중전회는 시진핑이 2022년 10월 개최된 중공 20차 전당대회에서 장기집권 체제로 돌입한지 1년 9개월여 만에 개최되었음. 3중전회가 통상 집권 1년차 가을에 개최된 관례를 감안할 때, 장기집권 체제에서의 정책노선 수립을 둘러싸고 상당한 내부진통이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게 함.

▷ 중전회 일정 상, 2024년 가을에 개최되어야 하는 4중전회를 앞두고 더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시점에 개최된 것임.

▷ 20대(大) 중공 지도부가 출범한 지 1년도 안 되는 시점인 2023년부터 시진핑은 자신이 임명한 중앙지도부 인사들에 대한 대규모 숙청을 감행해 오고 있는데, 이번 3중전회에서 이를 공식적으로 정리하였음.

- 7월 18일 3중전회 폐회를 앞두고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것을 진일보 시키고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중공중앙 결정(中共中央关于进一步全面深化改革 推进中国式现代化的决定)⁸⁾(이하 '결정문')을 통과시켰음.

- 20기 3중전회 결정문의 주요 내용은 15개 주제에 대해 60개의 결정사항을 담고 있음(〈표 4〉 참조).

▷ 20기 3중전회 결정사항에 대해 시진핑이 그 결정사항 도출 과정과 의미를 설명하는데, 이 설명문을 통해 중공 지도부의 실질적인 의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음.

▷ 시진핑을 핵심으로 하는 중공 지도부의 의도와 의미에 대해서는 〈표 4〉 '핵심 의미 설명'(이하 '설명문')란 참조.

- 당 중앙위원 인사와 관련해서 친강 전 외교부장이 사직을 수용하는 형식으로 면직되었고, 3중전회 전인 6월 당적이 제명된 전임 국방부장 웨이펑허에

8) 中共中央关于进一步全面深化改革 推进中国式现代化的决定(2024年7月18日中国共产党第二十届中央委员会第三次全体会议通过), https://www.gov.cn/zhengce/202407/content_6963770.htm.

이어 이번 3중전회에서 해임된 리샹푸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이자 국방부장, 리위차오 로켓군 상장, 쑨진밍 로켓군 참모장의 당적을 제명하는 조치를 내렸음⁹⁾.

▷ 시진핑 군부개혁의 핵심인 전략지원군 편제 자체를 해체한데 이어 인민해방군 로켓군 핵심 인물들을 대거 숙청한 것임.

▷ 이는 군부 핵심 및 당 중앙 지도부 일부 인사들이 시진핑 권력에 대한 이의 제기 또는 내부 권력암투가 심각하게 전개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겠음.

군부 핵심 및 당 중앙 지도부 일부 인사들이 시진핑 권력에 대한 이의 제기 또는 내부 권력암투가 심각하게 전개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겠음.

[표 4] 20기 3중전회 결정 주요 결정 사항 및 의미 설명

주 제	주요 결정사항 ¹⁰⁾	핵심 의미 설명 ¹¹⁾
경제체제 개혁방향 (국가-시장관계)	전면심화개혁 진일보, 중국식현대화 (进一步全面深化改革, 推进中国式现代化的重大意义和总体要求)	당·국가 주도 경제 심화
경제정책 방향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构建高水平社会主义市场经济体制)	- 새로운 질적 생산력 발전 (新质生产力发展) 촉진 - 당·국가의 금융 통제력 강화 - 농촌 집단경제 및 공동소유제도 공고화 - 대외개방 확대 차원에서 높은 수준의 일대일로 건설
	고품질 경제발전체제 메커니즘 추동(健全推动经济高质量发展体制机制)	
	전면적 혁신체제 메커니즘 건설(构建支持全面创新体制机制)	
	거시경제 거버넌스 시스템 개선(健全宏观经济治理体系)	
	도시농촌융합발전체제 메커니즘 완비(完善城乡融合发展体制机制)	
	높은수준의 대외개방체제 메커니즘 완비(完善高水平对外开放体制机制)	
	전과정인민민주제도체제 개선(健全全过程人民民主制度体系)	
	중국특색사회주의법치체제 완비(完善中国特色社会主义法治体系)	
	문화체제 메커니즘 개혁 심화(深化文化体制机制改革)	
민생제도체제 보장 및 개선(健全保障和改善民生制度体系)		
생태문명체제 개혁 심화(深化生态文明体制改革)		

9) 中国共产党第二十届中央委员会第三次全体会议公报, <http://cpc.people.com.cn/n1/2024/0718/c64094-40280555.html>.

10) 中共中央关于进一步全面深化改革 推进中国式现代化的决定(2024年7月18日中国共产党第二十届中央委员会第三次全体会议通过), https://www.gov.cn/zhengce/202407/content_6963770.htm.

11) 关于《中共中央关于进一步全面深化改革、推进中国式现代化的决定》的说明, 2024年7월 21일, 『人民网』, <http://politics.people.com.cn/n1/2024/0721/c1024-40282039.html>.

국가안보	국가안전체제와능력현대화 추진(推进国家安全体系和能力现代化)	- 국가안보에 우선순위 부여 - 전과정인민민주주의제도 건설
	국방 및 군대 개혁 지속 심화 (持续深化国防和军队改革)	- 국가안보에 우선순위 부여 - 전과정인민민주주의제도 건설
당 영도	전면심화개혁 진일보, 중국식현대화 추진을 하는데 있어 당의 영도수준 제고 (提高党对进一步全面深化改革, 推进中国式现代化的领导水平)	- 시진핑을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 영도 강화에 중점

III. 중공 20기 3중전회 결과 해석 및 평가

1. '결정문' 및 '설명문' 평가

■ '결정문'은 그 문장에 나온 용어나 수사보다는 그 실질적인 의미를 해석해야 하며, 그 실질적인 의미는 보통 '결정문'에 대한 당 총서기(시진핑)의 '설명문'에 보다 명확히 나와 있음. 따라서 용어와 개념이 아닌 그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겠음.

▷ 예를 들어, '개혁심화'라는 표현을 해석할 때 단순히 개혁을 심화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매우 큰 형식오류에 빠질 수 있는 것이므로 '어떠한' 개혁 심화를 의미하는지를 분석해야 함.

▷ '설명문'에서 시진핑은 "개혁심화 진일보"가 당·국가 주도의 개혁심화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음.

■ 20기 3중전회 결정 사항 내용은 현 정치경제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과 진단, 그리고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정책이 제시되어야 하지만, '진단 → 실행'의 일관성이 없이 공허한 수사와 자화자찬 일색임.

▷ 예를 들어 결정문에 18기 3중전회 결정사항이었던 '시장의 결정적 역할과 정부의 시장 개입 종식'이라는 목표를 달성했다고 선언하고 있으나 사실은 정반대로 당·국가 주도 및 개입이 강화되어 '국진민퇴'의 결과를 가져왔음.

▷ 또한, '시장 주도' 달성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목표를 2029년까지 '시장이 자원배분을 결정하고 민간기업과 외자기업이 국유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정함으로써 전형적인 자가당착의 내용을 한 결정문에 동시에 나열하고 있음.

- 20기 3중전회 결정 내용의 핵심을 요약하면 첫째, 국가-시장 관계에서 당·국가의 지도적 역할을 강화¹²⁾, 둘째, 투입(투자)주도의 경제성장 정책을 지속, 셋째, 수사적 선언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력 증진을 위한 정책은 후순위, 넷째, 세계시장에 대한 중국산업 장악력 확대강화, 다섯째, 국가안보·정치안보·시진핑 권력 및 공산당 권력 수호의지를 대폭 강조하고 있음.

20기 3중전회 결정 내용의 핵심을 요약하면 첫째, 국가-시장 관계에서 당·국가의 지도적 역할을 강화, 둘째, 투입(투자)주도의 경제성장 정책을 지속, 셋째, 수사적 선언에도 불구하고 민간 소비력 증진을 위한 정책은 후순위, 넷째, 세계시장에 대한 중국산업 장악력 확대강화, 다섯째, 국가안보·정치안보·시진핑 권력 및 공산당 권력 수호의지를 대폭 강조하고 있음.

2. 국가-시장 관계: 시장에서 당·국가로의 회귀와 당·국가 주도 경제사회 관리 강화

- 시진핑은 향후 집권 기간 동안 당·국가가 중심이 되어 주도하는 경제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을 공고히 하였음.

▷ 이번 20기 3중전회 ‘결정문’은 시진핑 집권 1기인 18기 3중전회 결정문¹³⁾과 비교할 필요가 있겠음.

▷ 시진핑이 중공 최고지도자로 선출된 집권 1기의 첫 번째 경제노선 결정문이었던 18기 3중전회 결정문은 여전히 시장 주도의 경제를 강조하고 있었던 반면, 시진핑의 집정 노선이 본격적으로 반영된 이번 20기 3중전회 ‘결정문’은 당·국가 주도의 경제 체제 구축 의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음.

- ‘당·국가’ 주도로의 경제체제 구축을 위해 “흔들리지 않는 두 가지 사안(两个毫不动摇)’으로 ① ‘전국통일대시장’ 건설을 통한 ② 시장경제 기본제도를 완비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당·국가’가 시장을 관리 통제하는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임.

시진핑은 향후 집권 기간 동안 당·국가가 중심이 되어 주도하는 경제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을 공고히 하였음.

-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구축”을 위해 국유기업의 핵심기능과 경쟁력을 향상시킨다고 천명함으로써 ‘국진민퇴’가 더욱 가속화될 것임.

▷ 향후 국유기업에 대한 국가 재원의 중점지원 체제를 가속화해 국유기업 중심의 기술혁신과 생산력 향상을 추진할 것임.

- 20기 3중전회에서 강조한 ‘새로운 질적 생산력 발전(新质生产力发展)’이란 투입·투자주도 성장모형을 지속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국가가 국유

12) Berry Naughton은 이를 ‘위대한 조타수(Grand Steerage)’로 개념화하고 있는데 중국정치경제 모델이 국가-시장 관계를 시장중심으로 전환해야 할 때, 시진핑은 정반대로 국가중심으로 회귀함으로써 중국경제발전의 미래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진단. ‘위대한 조타수’는 과거 마오쩌둥에게 절대적 영도자 칭호로 부여되었던 용어로서 마오쩌둥식 사회주의 정책을 상징함. 시진핑 집권 후 시진핑에 대한 충성경쟁 속에서 이 용어가 다시 등장, 오늘날 시진핑을 중화민족의 위대한 조타수로 칭하고 있음. 이와 관련된 논의는 Berry Naughton, “Grand Steerage as the New Paradigm for State-Economy Relations,” In Pieke, Frank N. and Bert Hofman (eds.). 2022. CPC Futures: The New Era of 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Singapore: NUS Press 참조.

13) 《中共中央關於全面深化改革若干重大問題的決定》, <http://politics.people.com.cn/n/2013/1115/c1001-23559207.html> 참조.

핵심은 국가 주도 투자(투입)를 통한 경제성장 모델을 유지하지만 그동안의 투입·투자 주 대상이었던 부동산을 포함한 인프라에 대한 투자에서 산업과 기업에 대한 투자로 전환하겠다는 것임.

기업을 중심으로 최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투자(투입)를 대규모로 단행함으로써 기술혁신과 생산력 발전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전세계 시장에 대한 장악력을 제고한다는 것임.

▷ 핵심은 국가 주도 투자(투입)를 통한 경제성장 모델을 유지하지만 그동안의 투입·투자 주 대상이었던 부동산을 포함한 인프라에 대한 투자에서 산업과 기업에 대한 투자로 전환하겠다는 것임.

▷ 또한, 국가 재원이 집중 투자될 대상과 생산력 발전의 주체는 국유기업임을 밝히고 있으며, 국유기업 중심으로 최첨단 신성장 동력 산업(반도체, 전기차, 태양광 및 풍력, AI 양자컴퓨터를 포함한 IT산업 등)을 육성한다는 계획.

■ 경제발전 모델로 시장(민간) 중심이 아닌 당·국가 주도 중국현대화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주도 개발투자를 통한 양적 성장 모델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함. 단, 그동안 사회경제 인프라 투자에서 국가 주도로 산업생산력 향상에 집중 투자를 하겠다는 의미임.

3. 금융 및 세제 개혁: 당·국가의 금융장악력 강화와 지방정부 재정파탄 대응을 위한 소비세 징수권한 이전

■ 현재 중국이 당면한 경제적 난관은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인 인프라 과잉 개발투자로 발생한 과도한 악성부채 문제가 금융 건전성을 급속히 악화시키고 있는 문제임. 금융 불안정 문제가 가시화·실체화됨에 따라 정부의 금융통제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금융안정 관리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임.

■ 중국 지방정부 부채는 중국 재정부가 확인한 금액만으로도 2023년 연말 기준 약 40조 위안(약 7천288조 원)¹⁴⁾인데, 여기에 장부에 드러나지 않은 은폐된 부채의 규모가 약 11조 달러(약 1경4천4백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분석¹⁵⁾되고 있음.

▷ 이에 따라 현재 다수의 지방정부가 재정파탄 상황에 빠져있는데, 문제는 ① 실효성 있는 문제해결방안이 부재하다는 것, ② 지방 경제 및 사회적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분출되고 있다는 것임.

■ 20기 3중전회의의 향후 경제정책 결정 사항들에서 주목해야 할 사안 중 하나는 세제개혁안임. 중앙정부의 소비세 징수권을 점차적으로 지방정부에 이양한다는 것인데, 이는 1994년 세제개혁 이후 중앙에서 지방으로 조세권한을

14) 程思炜, 2024, 2023年末地方政府债务余额超40万亿元 全年利息支出1.2万亿元, 『财新』, 2024년 1월 30일자, <https://economy.caixin.com/2024-01-30/102162035.html>.

15) Brian Spegele, Rebecca Feng, 2024, Trillions in Hidden Debt Drove China's Growth. Now It Threatens Its Future, Wall Street Journal, 2024년 7월 14일자, <https://www.wsj.com/world/china/china-economy-debt-borrowing-33f08b5e>.

부분적으로 이양하는 중대한 변화에 해당하지만 그 효과는 매우 부정적일 수밖에 없음.

- ▷ 중국은 현재 중앙정부가 소비세 징수권한을 모두 보유하고 있음. 소비세는 중앙 정부 전체 세수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음.
- ▷ 1994년 세계개혁은 세금과 정부재정을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로 집중하는 것이 주요 골자였는데, 이는 중국발전모델, 지역간/도농간 빈부격차 확대, 지방정부 외자 유치와 시장개혁,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인프라 건설과 부동산 버블 등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제도개혁의 의미가 있었음.
- ▷ 현재 파산직전에 놓인 수많은 지방정부의 재정난을 해소하고자 30여년 만에 세계 개혁 전환을 시도하는 것임. 다만, 현재 중국의 경제 및 정치체제의 현실을 감안할 때, 지방정부의 소득세 징수 및 관리 권한 확대 조치는 그 효과는 미미한 반면 정치경제 및 사회적 부작용과 혼란을 가중시킬 것임.
- 지방정부가 소비세 징수권한을 얻게 될 경우, 재정상황이 곤란한 지방정부들이 경쟁적으로 소비세 증세 → 실질 소비자 물가 인상 → 서민경제 악화 및 소비 위축 심화 → ① 경제불황의 악순환과 ② 중국 지방서민층의 반발 심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임.

4. 농촌집산화 부활: 농민공 실업 및 귀향에 따른 사회불안정 요인 관리

- ‘도시농촌융합발전체제 메커니즘 완비’라는 미명 하에 농촌 집단경제 및 공동소유제도를 공고화한다는 방침을 천명했는데, 농촌 집산화는 중공이 대륙을 공산화한 이후 시행했던 것으로 이미 그 실패가 증명된 정책임. 본 정책의 배경으로 수역에 이르는 농민공이 도시에서의 대규모 실업으로 사회불안요인이 되자 농촌으로 재흡수하려는 목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 본 정책이 본격적으로 실행되면 농업생산성 후퇴와 농촌빈곤이 악화될 것이지만 도시에서 ‘농민공 실업자’라고 하는 중대한 사회불안요인을 통제하는데 효과적일 수는 있을 것임.

5. 대외개방: 중국의 세계시장 지배력 확대와 일대일로 전략 지속추진

- 대외개방을 지속 확대한다는 문장이 있으나, 이를 위한 구체적 실행정책이 없는 수사적 선언에 그치고 있음.
- ▷ 대외개방 확대를 위해 외자기업에 대한 차별대우를 금지하는 실행정책을 제시해야 하지만 현실은 오히려 외자기업에 대한 중공의 장악력을 확대하고 중국시장에 대한 접근권을 차단하고 있으며, 중국시장 정보 수집 및 분석을 금지시킴으로써 중국 내 외자기업의 사업환경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음.

- 대외개방 및 대외경제 항목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일대일로 전략을 중국의 발전전략인 신성장 첨단산업과 연계해 추진한다는 것인데, 이는 일대일로 참여 국가에 중국제도와 중국표준을 통해 중국의 해당 국가 시장장악력을 제고하겠다는 의미임.

6. 국가안보 및 정치안보: 시진핑 절대권력 및 중국공산당 체제 수호에 최우선 정책순위 부여

- 20기 3중전회 결정사항의 결론은 시진핑을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영도 체제를 확고히 구축한다는 것임. 따라서 향후 시진핑 1인지배체제는 더욱 강화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음.

▷ 시장보다 당·국가, 경제보다 국가안보와 정치안보를 강조하고 있으며, 당·국가의 핵심은 당중앙 영도자 시진핑임.

▷ 결정문에 2029년 목표설정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시진핑의 4연임(2027년 21차 전당대회)을 정당화하기 위한 포석임. 시진핑은 19대(大) 기간에 2035년 목표달성 기간을 설정하고 자신의 장기집권과 3연임을 정당화하는 포석을 사전에 깔았는데, 이번에는 차기 집권을 정당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2029년 목표를 설정.

- ‘중국식 현대화’를 구축한다고 선언하고 있는데, ‘중국식 현대화’의 의미는 국가안보를 기초이자 기반으로 설정하고 모든 정책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 하는 것.

▷ 국가안보가 ‘중국식 현대화’ 달성의 초석이자 최우선 순위부여 사항이며, 국가안보의 핵심은 시진핑을 핵심으로 하는 중국공산당 지도부 수호라고 강조.

▷ 중공중앙 조직부는 시진핑 사상과 강화 학습 설명에서 국가안보의 심장은 정치안보, 정치안보의 핵심은 정권과 체제를 수호하는 것. 따라서 정치안보의 가장 근본은 “중국 공산당 영도와 집정 지위 수호”라고 밝히고 있음¹⁶⁾.

▷ 보다 정확한 의미를 부연 설명하면, 중국공산당 체제와 시진핑 정권의 생존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겠다는 것임.

- 국가안보능력 강화와 관련해 ‘전과정 인민민주주의’ 건설을 강조하고 있음. ‘전과정 인민민주주의’ 제도란 공산당이 사회 저변에 이르기까지 감시 및 통제하는 체제를 제도적으로 공고히 한다는 의미임.

▷ 시진핑이 강조하고 있는 ‘전과정 인민민주주의’ 제도 건설은 개혁개방 이후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확대된 중국 사회에 대한 감시 및 통제권을 모든 과정에서 공고히 한다는 것으로서 공산당 전체주의 사회를 더욱 강화해 구축하는 것임.

결정문에 2029년 목표설정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시진핑의 4연임(2027년 21차 전당대회)을 정당화하기 위한 포석임. 시진핑은 19대(大) 기간에 2035년 목표달성 기간을 설정하고 자신의 장기집권과 3연임을 정당화하는 포석을 사전에 깔았는데, 이번에는 차기 집권을 정당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2029년 목표를 설정.

시진핑이 강조하고 있는 ‘전과정 인민민주주의’ 제도 건설은 개혁개방 이후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확대된 중국 사회에 대한 감시 및 통제권을 모든 과정에서 공고히 한다는 것으로서 공산당 전체주의 사회를 더욱 강화해 구축하는 것임.

16) 为什么说政治安全是国家安全的根本?, 2021년 9월 14일, 『共产党员网』, <https://www.12371.cn/2021/09/14/ART11631573506241929.shtml>.

▷ 따라서 향후 중국 사회의 전체주의화는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으며, 이는 마오쩌둥 시기의 공산사회로 회귀하는 것을 의미함.

IV. 20기 3중전 이후 중국의 정치경제 및 대외관계 전망

1. 중국정치

■ 시진핑 1인지배 체제가 더욱 고착화됨과 동시에 중앙권력 내에서의 내부 권력투쟁과 당내 분열은 심화될 것임.

▷ 2022년 10월 3연임을 확정지은 시진핑은 집권 3기 핵심 지도부를 시진핑 총성파로 구성했는데, 구성한 지 반년도 안 되는 시점부터 핵심 총성파 다수에 대한 대규모 숙청을 단행.

▷ 2023년 초반 이후 웨이펑허 전 국방부장, 리상푸 국방부장, 리위차오 로켓군 사령관, 친강 외교부장, 류쿤 재정부장, 탕런젠 농업농촌부장, 왕즈강 과학기술부장, 우옌셴 중국항천과기집단공사(CASC) 회장, 류스취안 중국북방공업집단 유한공사 (Norinco·노린코) 등 시진핑 핵심 가신그룹 다수를 숙청해오고 있음¹⁷⁾.

▷ 중공 중앙권력 내의 권력투쟁 결과, 끊임없는 숙청과 권력불안정, 그리고 당내 단결력 약화로 귀결될 것임.

■ 현재 중국 중앙권력 구도는 문화혁명 대동란 기간에 마오쩌둥을 중심으로 한 권력구도와 매우 흡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앙에서의 권력투쟁이 더욱 심화되고 그 결과 정책은 보다 경직되고 급진화 될 것을 전망할 수 있겠음.

▷ 문화혁명 대동란 기간의 권력구도는 절대적인 1인지배자 마오쩌둥을 중심으로 린바오와 4인방(장칭, 왕홍원, 장춘차오, 야오원위안) 등의 끊임없는 권력투쟁과 마오쩌둥에 대한 충성경쟁이었고, 그 결과는 경직되고 급진적인 정책의 남발이었음.

▷ 현재 시진핑 1인절대지배 체제의 권력구도는 시진핑을 정점으로 하고, 그 하위에 가신집단 핵심인사들인 차이치, 리창, 평리위안과 왕후닝 등이 벌이는 권력암투가 전개되고 있으며, 이들은 시진핑에 대한 충성경쟁을 통해 2인자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상호견제 및 권력경쟁을 전개하고 있음.

▷ 종신집권 이외의 선택지를 상실한 시진핑은 후계구도를 둘러싸고 충성경쟁을 전개하고 있는 시진핑 4인방에 대해 마오쩌둥 식의 가신집단에 대한 '상호견제와 충성 유도, 이를 통한 개인절대권력 유지' 전략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음.

▷ 현재의 권력구도와 권력투쟁 전개양상의 결과 시진핑 1인절대지배 체제 공고화와 정책의 경직화 및 급진화가 전개될 것임.

17) 시진핑의 시자진(習家軍) 핵심 가신그룹 숙청의 의미에 대해서는 Daria Impiombato and Nathan Attril, 2024, "Third plenum exits show trust still an issue for Xi," ASPI, 19 Jul 2024, <https://www.aspistrategist.org.au/third-plenum-exits-show-trust-still-an-issue-for-xi/> 참조.

발전 초기 단계를 지나 중진국 단계에 도달한 현재의 중국 성장단계에서는 국가와 시장의 관계를 시장 주도로 재설정하지 않으면 '중진국의 함정'을 피할 수 없음.

기업과 기술에 대한 국가주도의 대규모 투자 모델이 첨단 신성장 동력 산업분야에서의 기술 혁신과 생산력 발전, 국제 경쟁력을 달성하는 데 실패한다는 사실은 시장경제가 출현한 이후의 산업발전 역사가 이미 입증한 사실임.

중공 당국의 사회통제와 관리 비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권과 체제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은 반면, 중국사회동요와 불안정 요인이 대외적으로 표출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2. 중국 경제 및 사회

- 당·국가 주도의 시장경제 운영이 심화됨에 따라 이른바 '국진민퇴'¹⁸⁾는 더욱 가속화 되면서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의 악순환¹⁹⁾이 전개될 것임.
 - ▷ 시장으로의 권력이양 없이 중진국의 함정을 극복한 사례는 없음.
 - ▷ 발전 초기 단계를 지나 중진국 단계에 도달한 현재의 중국성장 단계에서는 국가와 시장의 관계를 시장 주도로 재설정하지 않으면 '중진국의 함정'을 피할 수 없음²⁰⁾.
- 20기 3중전회에서 '새로운 질적 생산력 발전(新质生产力发展)' 전략을 선언했으나, 기업과 기술에 대한 국가주도의 대규모 투자 모델이 첨단 신성장 동력 산업분야에서의 기술혁신과 생산력 발전, 국제경쟁력을 달성하는 데 실패한다는 사실은 시장경제가 출현한 이후의 산업발전 역사가 이미 입증한 사실임.
 - ▷ 산업발전 초기와 중기를 지나, 고도 산업사회로 진입하는데 주동력은 국가가 아닌 시장(민간)이었음.
 - ▷ 반도체와 같은 최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국가주도의 대규모 투자가 실패한 사례를 최근 중국의 경우로 살펴보면, 시진핑이 추진한 '반도체 굴기' 실패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시진핑의 '신질생산력발전' 전략은 대규모 국가 지원 낭비와 미미한 결과로 귀착될 것임.
- 최근 그동안 축적되어 온 중국경제 모델의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면서 중국경제 상황이 급속히 악화됨에 따라 민심의 동요가 발생하고 있음.
 - ▷ 이에 따라 중공 당국의 사회통제와 관리 비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권과 체제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은 반면, 중국사회 동요와 불안정 요인이 대외적으로 표출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18) 당·국가가 주도하는 국유기업, 국유금융, 유통 등이 경제를 이끌어감에 따라 민간(사영) 경제 부문은 더욱 축소 및 악화되는 현상.

19) 국가-시장 관계에서 논의되는 '정부실패'와 '시장실패(market failure)' 개념을 당·국가 체제인 중국에 단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시장에 대한 국가 주도 및 개입은 현재 중국경제 성장단계에서 '정부실패'의 전형적인 패턴을 보여주고 있음.

20) David Shambaugh, 2016. "Contemplating China's Future." The Washington Quarterly 39 (3): 121-30; Martin Wolf, 2023, "Politics poses the biggest threat to economic growth in China," Financial Times, October 25 2023, <https://www.ft.com/content/5c88b523-9312-4057-948b-0f0ac625725d>.

3. 대외관계

- 20기 3중전 결정사항은 시진핑 집권 후 견지해 온 대내외 정책을 보다 가속화한다는 것으로서 향후 대외관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모멘텀이 도출될 가능성이 매우 낮음.
 - ▷ 중공이 시진핑 집권 후 전개해 온 대외팽창 정책과 자유세계와의 대결적 자세를 완화하고 미중화해 모드로 전환하기 위한 의지와 행동 강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해양, 한반도와 대만, 유럽 및 중동에서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 반자유주의 세력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세계의 대치국면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전망됨.
- 중국 국내경제 악화 및 사회적 동요 심화 등의 사안은 시진핑 집권의 정당성과 안정성을 위협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고, 시진핑을 중심으로 한 중공 지도부는 국내적 불만을 대외적으로 표출시키고자하는 전형적인 '관심전환(diversionary)' 전술을 구사함으로써 공세적 대외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음.
 -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이 러시아를 오히려 위기상황으로 내모는 자충수였음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시진핑과 중공 인민해방군이 실제로 대만침략을 단행할 가능성은 매우 낮음.
 - ▷ 다만, 시진핑은 특히 국내적으로 고양되어 있는 중화민족주의를 이용해 대만문제를 더욱 이슈화하고 양안관계 긴장도를 높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 이는 대만해협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안보불안정을 동시에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중공의 국제정치경제 전략과 관련해서, 20기 3중전 결정사항은 중국 국유기업이 주도가 되는 '새로운 질적 생산력 발전(新质生产力发展)'을 일대일로 전략과 연계해 국제경제 장악력을 제고하겠다는 것이지만 실질적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것임.
 - ▷ 최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중국 국유기업에 대규모 투자를 통해 일대일로 참여 국가들에 대한 시장장악력을 높여 중국 중심의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구축하고, 경제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공고히 한다는 전략.
 -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저개발 국가들을 제외한 여타 동남아·서남아·중남미 개도국들이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향후 더 높아질 가능성은 탈중국·글로벌공급망 다변화 정책이 가속화됨에 따라 점차 낮아질 것임.
- 미국, 일본, 유럽 등 자유서방 선진국들의 탈중국·중국위험 회피(decoupling China·derisking China)와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정책이 가속화되면서 중국생산 중심의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의 재편이 진행될 것임.

사하라이남아프리카저개발 국가들을 제외한여타동남아·서남아·중남미 개도국들이 중국에대한경제적의존도가 향후 더 높아질 가능성은 탈중국·글로벌공급망 다변화 정책이가속화됨에따라점차 낮아질 것임.

- ▷ 러시아, 북한, 이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과 같이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이 심한 국가와 지역의 중국경제권 편입이 심화될 수 있으나, 자유서방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한 자유세계의 탈중국·중국위험 회피 정책이 보다 가속화 되면서 세계 경제의 이분화가 더욱 촉진될 것임.
- ▷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이른바 '알타시아(altasia)' 국가들(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인도, 방글라데시 등)²¹⁾이 중국제조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임.
- ▷ 20세기 냉전시기 경험은 글로벌 기술혁신과 생산력 발전은 반자유주의 진영 내의 경제권(구 COCOM)이 아니라 자유시장 경제권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증명해 주고 있음.
- 최근 미국과 유럽에 이어 동남아 및 중남미 국가들도 덩핑을 통한 중국 국내의 과잉생산 문제의 해외전가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대응에 나서고 있음. 따라서 향후 중국은 국제무역분쟁의 주 대상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겠음.

V. 한국의 고려사항

- 한국 정부와 기업은 중국발 경제 위기 대응 및 위험관리 방안을 신속히 강구해야 하겠음.
 - ▷ 중공 당국은 현재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난관을 타개할 전면적 정책전환을 단행할 의지와 능력이 부재하며, 이는 향후 중국 경제의 추락이 더욱 가속화될 것임을 의미함.
 - ▷ 위기상황에 몰린 중국 지방정부 부채문제와 부동산 거품 붕괴가 연동되어 금융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지만, 국가가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중국금융 시스템의 특성 상 국제금융문제로 파급될 가능성은 여전히 낮음.
 - ▷ 따라서 한국이 중점적으로 주목해야 할 사안은 중국 국내 소비침체에 따른 내수 부진, 과잉생산과 정부보조금 지급 등으로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대한 덩핑 남발임.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강구해야 할 것임.
- 중공 당국은 향후 최첨단 신성장 동력산업에 대한 투자를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로 단행할 것임. 이는 한국의 기업과 경제에 다각적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음.

한국이 중점적으로 주목해야 할 사안은 중국 국내 소비침체에 따른 내수부진, 과잉생산과 정부 보조금 지급 등으로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대한 덩핑 남발임.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강구해야 할 것임.

21) Mike Bird, 2023, "Global Firms Are Eyeing Asian Alternatives to Chinese Manufacturing," The Economist, February 22, 2023, <https://www.economist.com/business/2023/02/20/global-firms-are-eyeing-asian-alternatives-to-chinese-manufacturing>.

- ▷ 첫째, 반도체, 2차전지, 전기차, AI 양자컴퓨팅, 빅데이터 등에 대규모 자원을 투입함으로써 관련 산업 기계, 장비 및 부품, 소자 등에 대한 수요가 향후 약 5년간의 중단기 기간 동안 대폭 증가할 것임.
 - ▷ 둘째, 하지만 해당 분야에서 미국을 위시한 자유서방 선진국 기업 및 기술과 연동되지 않은 대규모 투자는 시장 친화적 기술혁신과 생산력 발전에 절대적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 해당 산업에서 세계시장의 독보적 지위를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
 - ▷ 셋째, 따라서 해당 분야 한국 기업은 미국, 일본, 대만, 유럽 선진 기술국과의 경쟁과 협업 네트워크를 대폭 강화해야 하며, 동 분야 핵심기술의 중국유출을 차단하고 중국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는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임.
 - ▷ 넷째, 중공 당국의 대규모 투자와 보조금 지급으로 최첨단 산업뿐만 아니라 2차 산업에서의 과잉생산 문제가 더욱 심화되면서 중국 국내의 과잉생산공급 문제를 대외적으로 수출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미국, 일본, 유럽 등과 협력해 중국발 불공정 무역에 대응함으로써 국내 기업 및 산업을 보호해야 할 것임.
 - ▷ 다섯째, 중국제조, 중국공장에 대한 대안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알타시아(Altasia: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방글라데시 등)' 시장으로의 공급망 다변화 및 시장 개척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유기적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임.
- 한반도 및 동아시아 해양 안보와 관련해서 악화되는 중국사회경제 상황과 대외적 고립은 대만, 한반도, 동·남지나해 해양안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감안, '전략적 대응'²²⁾ 차원에서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협력체제, AUKUS+, 나토-인태 파트너국 협력 등을 대폭 강화해야 하겠음.

한반도 및 동아시아 해양 안보와 관련해서 악화되는 중국사회경제 상황과 대외적 고립은 대만, 한반도, 동·남지나해 해양안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감안, '전략적 대응' 차원에서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협력체제, AUKUS+, 나토-인태 파트너국 협력 등을 대폭 강화해야 하겠음.

22) 국내 정치경제 불안정으로 정권 정당성이 위협받을 때 대외 위기요인을 이용해 국내 권력유지를 도모한다는 '관심전환이론(diversionary theory)'의 예외 요인 중 하나가 상대 국가들이 이러한 가능성을 간파해 사전에 동맹강화를 통해 억지력을 높임으로써 도발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임. 정성철, "관심전환전쟁이론: 논리와 근거," 『한국정치학회보』, 47집 5호, 2013, pp. 392~394 참조.

참고문헌

- 정성철. 2013. “관심전환전쟁이론: 논리와 근거.” 『한국정치학회보』. 47집 5호.
- Bachman, David. 1991. *Bureaucracy, Economy, and Leadership in China. The Institutional Origins of the Great Leap Forward.*
- Bird, Mike. 2023. *Global Firms Are Eyeing Asian Alternatives to Chinese Manufacturing*, February 22, 2023, *The Economist*, <https://www.economist.com/business/2023/02/20/global-firms-are-eyeing-asian-alternatives-to-chinese-manufacturing>.
- Impiombato, Daria and Nathan Attril. 2024. *Third plenum exits show trust still an issue for Xi*. 19 Jul 2024. *ASPI*, <https://www.aspistrategist.org.au/third-plenum-exits-show-trust-still-an-issue-for-xi/>
- Pieke, Frank N. and Bert Hofman. 2022. *CPC Futures: The New Era of 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Singapore: NUS Press.
- Shambaugh, David. 2016. “Contemplating China’s Future.” *The Washington Quarterly* 39 (3): 121–30.
- Spegele, Brian, and Rebecca Feng. 2024. *Trillions in Hidden Debt Drove China's Growth. Now It Threatens Its Future*. *Wall Street Journal*. 2024년 7월 14일자, <https://www.wsj.com/world/china/china-economy-debt-borrowing-33f08b5e>.
- Wolf, Martin. 2023. *Politics poses the biggest threat to economic growth in China*, October 25 2023, *Financial Times*, <https://www.ft.com/content/5c88b523-9312-4057-948b-0f0ac625725d>.
- 中共中央关于进一步全面深化改革 推进中国式现代化的决定(2024年7月18日中国共产党第二十届中央委员会第三次全体会议通过), https://www.gov.cn/zhengce/202407/content_6963770.htm.
- 《中共中央關於全面深化改革若干重大問題的決定》, <http://politics.people.com.cn/n/2013/1115/c1001-23559207.html>.
- 关于《中共中央关于进一步全面深化改革、推进中国式现代化的决定》的说明. 2024년7월21일. 『人民网』, <http://politics.people.com.cn/n1/2024/0721/c1024-40282039.html>.
- 为什么说政治安全是国家安全的根本? 2021년 9월 14일. 『共产党员网』, <https://www.12371.cn/2021/09/14/ARTI1631573506241929.shtml>.
- 人民网. 2018. “国防部:海警队伍转隶武警部队没有改变其基本任务属性.” 6월 28일자, <http://military.people.com.cn/n1/2018/0628/c1011-30094252.html>.
- 全国人民代表大会. 1984[1998 수정]. *中华人民共和国兵役法* [已被修订] 第三十六条, <http://www.lawinfochina.com/display.aspx?lib=law&id=48&CGid=>.
- 程思炜. 2024. *2023年末地方政府债务余额超40万亿元 全年利息支出1.2万亿元*. 『财新』. 2024년 1월 30일자, <https://economy.caixin.com/2024-01-30/102162035.html>.
- 中共第八届历次中央全会, https://www.gov.cn/test/2007-08/28/content_729624.htm.

- 中共中央 国务院. 2021. “中共中央 国务院印发《国家标准化发展纲要》.” https://www.gov.cn/zhengce/2021-10/10/content_5641727.htm.
- 中国共产党第十届中央委员会第三次全体会议公报, https://www.gov.cn/test/2008-06/20/content_1022119.htm.
- 中国共产党第十九届中央委员会第三次全体会议公报, <https://news.12371.cn/2018/02/28/ARTI1519815447731142.shtml>.
- 中国共产党第十一届中央委员会第三次全体会议公报, <http://cpc.people.com.cn/GB/64162/64168/64563/65371/4441902.html>.
- 中国共产党第二十届中央委员会第三次全体会议公报, <http://cpc.people.com.cn/n1/2024/0718/c64094-40280555.html>.

❖ 저자 약력

■ 이지용 (계명대학교 인문국제학대학 중국어중국학과 교수)

미국 뉴욕주립대(Rockefeller College of Public Affairs & Polic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Albany)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함. 전공분야는 중국정치경제, 중국 외교, 동아시아 국제정치. 저서로는 중국의 초한전 (2023), 동아시아 해양분쟁과 중국의 회색지대전략(공저) (2021) 등이 있음. 외교부 국립외교원 교수를 역임한 후, 현재는 계명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이 외에 대통령 국가안보실 (외교안보)정책자문위원,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 중국전략연구소 부소장 등으로 활동 중임.

기획 및 감수: 박동준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실장)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63546)

전화: 064) 735-6500 **팩스:** 064) 738-6522

E-mail: jpi@jpi.or.kr **http://**www.jpi.or.kr

『JPI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